

지역 소식통

부안군,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최우수 연속 선정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6곳과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와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고충민원, 민원민족도 5개 분야 19개 지표로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고 "가"등급부터 최소 "바"등급까지 부여되며, 종합 결과 전국 상위 10% 이내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다.

부안군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수립의 적합성 △기관장의 민원 행정 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정보 제공 및 민원 법령 운영 등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2월 워크온 챌린지 소상공인 연계 쿠폰 지급

정읍시가 생활 속 걷기 운동 실천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걷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폐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우울증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건강걷기 유도를 위해 2월 워크온 챌린지(이하 챌린지)를 운영한다.

2월 챌린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연계 챌린지로 운영 참여업소는 8개소로 분식 3개소와 카페 5개소다.

챌린지는 13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1일 6,000보(1일 8,000보 제한) 이상 기간 내 85,000보를 달성하면 선착순 1,200명에게 소상공인 연계 쿠폰이 지급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난방비특별지원금 지급

전세대 20만원씩 ... 3월중 선불카드방식으로 지급예정

고창군이 군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대당 20만원씩을 지원한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한파 속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난방비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지원을 위해 '제4차 재난기본소득 난방비 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도비와 군비 등 총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1월31일 기준 총 2만8657세대에 각 20만원씩을 지원한다.

군은 예비비를 투입해 3월중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를 제외한 고창군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초 도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군은 지역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 군비를 대폭 추가해 전 세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직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1호 결재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힘써왔다.

이번 '4차 재난기본소득' 역시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개선될 틈도 없이,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와 공공요금 폭등까지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이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군민 모두가 참여 고창 방문의 해 만들어 가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3 세계유산 도시 고창 방문의해 관련 "지역 전체가 준비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방문의해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3일 오전 군청 내 전 부서장들이 참석한 '고창 방문의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지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고창 방문의해를 위해선 행정과 군민, 유관기관 등 지역 전체가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서별 책임 프로그램과 참여 군민(농어업인, 사회복지 시설 등)과의 소통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기획예산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개편(행정지원과) △수확여향단 유치(관광산업과)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문화예술과) △선운산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인재양성과) △고창 방문의해 꽃담 설치(산림공원과) △노후 도로표지판, 버스 승강장 정비(건설도시과) 등이 보고됐다.

앞서 지난달 고창과 서울에서의 선포식 이후 고창방문의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운사의 관광지 입장료 무료 결정'과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이 알려지며 고창방문 문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심 군수도 이번 주 '농·축·수협, 산림조합 임직원 간담회(13일)', '관광업계(요식업·숙박업·여행사 대표자) 간담회(14일)'를 잇따라 갖고 '고창 방문의해' 참여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이 더 좋게 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이학수 시장, 간부회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당부

시민 중심 민원업무 철저 대응 · 효율적 예산집행 노력도 '강조'

이학수 시장이 13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2월은 해빙기가 시작되는 계절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었던 지반이 녹아 균열·지반 침하가 생기기 쉬운 만큼 공사장을 비롯한 재난 취약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 사업 부서와 공사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 처리 시 친절한 응대와 세세한 설명도 강조했다.

특히 부서장을 중심으로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산의 신속·효율적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 등의 노력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필요성과 목적이 공감하며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원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상서면(면장 허미순)과 하서면(면장 김영자)에서 2023년 '창신비상(創新飛翔)' 군민소통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장학기금 · 고향사랑 소통 함께

부안 상서면 · 하서면, 창신비상 군민소통대화 성황리 종료

부안군 상서면(면장 허미순)과 하서면(면장 김영자)에서 2023년 '창신비상(創新飛翔)' 군민소통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먼저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상서면민 대상 군민소통대회는 상서면농가주부모임 임영자 회장과 상서면농녀의용소방대 김민철, 이종란 대장, 상서면 우덕마을 정옥기씨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부안군 군농인재 육성재단 장학기금 기탁을 시작으로 면정 주요업무 보고, 군정비전공유, 군민과의 소통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봉은마을 주차장 화질실 신속 예정지와 장전마을 배수로 설치 예정지를 찾아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가오경로당과 목포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소통행정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하서면 플라미움센터에서 열린 하

서면민 대상 군민소통대회는 하서면 노곡마을 김경중씨, 문수마을 김부월씨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부안군 군농장학금 기탁증과 재인전향우회 전용배씨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면정 주요업무 보고, 군정비전공유, 군민과의 소통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하서면 마을 경로당 2개소 및 주민행복 사업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하서면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일정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군민소통대회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3년 군정비전 및 운영방향이 담긴 비전영상 상영과 더불어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하게 나누는 '군민소통대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 돌파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이 시행 40여 일만에 1억원을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에 548명이 참여해 지역에 기부한 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

기부성향을 보면 10만원 기부자가 96%를 차지한다. 고창군 답례품 중에는 장어와 복분자, 고구마 제품이 대표 특산품답게 총답례품 신청 건수의 8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

도로 기부성향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시행 초반인데도 많은 분들이 고창군에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에 소중한데 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